

중국산 김치 4년간 6000억 수입

전체 수입 물량의 99%

민주 이원택 의원 “김치산업 활성화 통해 농가소득 증대 방안 마련해야”

김치산업진흥법이 시행된지 8년이 지났지만 김치 무역적자는 최근 4년간 1,8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김치산업진흥을 위해 농식품부는 2013년부터 김치산업 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지만 김치 순수입은 2013년 18만9,240톤에서 지난해 24만8,184톤으로 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무역수지 적자는 1억 5,600만 달러로 한 해 평균 한화(현시세) 450억원 수준의 무역 적자가 나고 있다.

농식품부는 국산 김치 경쟁력 제고를 통해 김치 중추국으로서의 위상 정



립을 위해 2018년 2차 김치산업진흥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계획에 따르면 국산 김치의 가격 및 품질경쟁력을 제고해 중국 김치 수입 확대에 대응하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2차 김치산업진흥 종합계획이 3년이 흐른 현재 중국과의 김치 무역적자는 한 해 천 억 원이 넘게 나고 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중국으로부터의 김치 수입량은 한 해 평균 28만 1,462톤으로 4년간 112만5,849톤이 수입됐다.

4년간 수입금액으로는 5억 1,900만 달러로 한화(현시세) 6,000억 수준이다.

반면 수출액은 154만7,000달러로 그 액수가 미미하다.

농식품부는 김치 수출 세계화 추진에 따라 수출국 다변화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주 수출국인 일본으로의 수출 물량만 줄어 들었을 뿐 수출물량은 2010년도 수출 2만9,672톤에서 지난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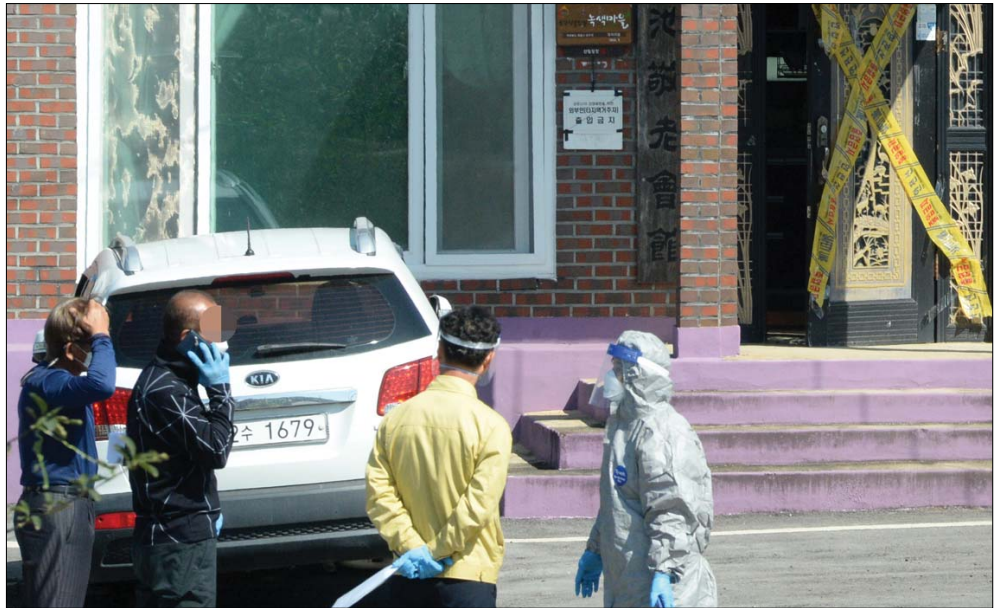
수출 2만9,628톤으로 지난 10년간 김치 수출의 물동량에 변화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

한편 김치산업 진흥법 제9조(통계조사)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김치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고 김치 및 김치재료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김치산업과 관련된 생산·유통·소비 등에 관하여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간 농식품부는 김치 통계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이원택 의원은 “김치산업은 농가소득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산업이다”며 “김치 한 포기 담기 위해 배추, 고추, 마늘, 파, 생강 등 많은 농산물이 소비되기 때문에 김치산업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김치산업의 실태조사를 통해 김치산업의 성장동력을 발굴해야 하나 그동안 농식품부는 김치산업 현황 관련 실태조사 한 번 하지 않은 것은 큰 문제다”고 지적했다.

/유호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진자가 발생해 정읍시 정우면 양지마을 전체가 이동 제한조치가 내려진 6일 마을주민들이 양지경로회관 입구에 폐쇄를 알리는 테이프가 붙어 있다.

추석모임 감염 확산... 도내서 첫 '마을 밖 이동 제한'

정읍 확진자 2명 추가 발생... 정우면 양지마을 이동제한 조치

전북 정읍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2명이 추가 발생했다. (관원기사 8면)

전북 141번과 143번 확진자다. 이에 따라 전북지역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마을 밖 이동제한조치가 내려졌다.

전북도 보건당국은 6일 “이날 오전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발생한 정읍시 정우면 양지마을 일대에 오는 19일까지 이웃끼리 접촉을 금지하고 마을 밖으로 이동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역 특성상 코로나19에 취약한 고령층이 많아 지역으로 퍼져나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우려해 내린 조치다.

6일 오전 확진 판정을 받은 전북지역 143번 확진자 A(70대 여성·정읍)

씨는 전날 양성 판정을 받은 전북 133번 확진자 B(30대 여성·정읍)씨의 시댁 이웃이다.

A씨는 B씨의 시어머니(전북 135번)와 지난 3일 오후 마을 회관 등에서 접촉한 것으로 파악돼 검사를 실시했고 6일 오전 양성 판정을 받았다.

B씨로 시작한 추석연휴 '가족 간 4명용한 전파'에 따라 현재까지 자녀 4명, 시부모, 친정오빠, 시댁 이웃 등 9명(B씨 포함)이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전북 134~140번, 143번 확진자로 분류된 상태.

또한 전북 141번 확진자는 중국 국적이 크다는 점을 우려해 내린 조치다.

6일 오전 확진 판정을 받은 전북지역 143번 확진자 A(70대 여성·정읍)

그는 안산 생활치료센터에 입원 예정이다.

C씨의 감염경로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정읍에서 함께 지낸 누나와 조카에 대한 검사는 현재 진행 중이다.

C씨는 지난 3일 편의점과 사우나, 마트 등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 보건당국은 전북140번 확진자 D씨가 확진일자는 늦지만 동선 및 검사결과를 감안하면 전북133번 B씨 감염원이 전북140번 D씨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했다.

이날 143번 확진자 A씨가 발생한 정우면 양지마을을 중심으로 '이동제한 조치' 명령이 내려졌다.

이동제한 조치가 내려지면 노인, 장애인 등 집단 시설이용이 전면 금지되며 이웃간 접촉과 마을 밖 외출도 모두 금지된다.

/유호상 기자

장점마을의 진실 밝혀지나

민주 김수흥 의원, 오늘 기재위 국정감사 규명 나서

마을 인근의 비료공장에서 배출한 담배연기 연소가스로 마을 주민 수십 명이 사망 또는 암 투병 중인 익산 장점마을을 집단 암 발생 사태가 올해 국정감사 첫날부터 핵심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실에 따르면 금년도 국정감사 첫날인 7일 기획재정부 국정 테이블에서 장점마을 사태에 대한 정부 및 KT&G의 책임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정부는 비료관리법 및 농촌진흥청 고시에 따라 담배 제조 부산물인 연초박을 부산물비료(퇴비)로 제조할 수 있도록 했으나 위해성이나 안전성에 대한 근거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점마을 사태가 발생한 이후 최근 연초박을 비료 원료에서 제외하는 농진청 고시를 개정할 것도 연초박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정부 스스로 인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KT&G의 경우 담배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인 연초박을 비료공장에 판매·공급해 이익을 취하면서 안전관리 책임은 방기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장점마을 사태의 원인이 연초박이라는 역학조사 결과가 나온 이후에야 KT&G는 연초박을 전량 소각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장점마을 사태에 대한 정부와 KT&G의 책임을 확실히 규명하고 피해 주민들에 대한 지원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

김수흥 의원은 “작은 시골마을에서 발생한 참사는 정부와 기업이 안일하게 생각한 인재(人災)가 확실하다”며 “어떤 일로도 잃어버린 생명을 되돌릴 수 없으나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수흥 의원은 앞서 ‘익산 장점마을 집단 암 발생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및 피해 배·보상 촉구 결의안’을 발의해 장점마을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호상 기자

이용호 의원 항불안제 처방 환자 작년보다 25% 이상 늘어

올해 마약류인 항불안제를 처방 받은 환자가 작년보다 25% 이상 늘었다. 이 추세라면 연간 1,0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항불안제는 흥분, 불안, 고통을 억제시켜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치료 등에 쓰이는 항정신성 약품이다.

중독, 오남용 우려가 있어 2018년 5월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별도 관리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5월부터 2020년 6월까지 항불안제를 처방받은 환자는 총 1,980만 명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에는 월평균 74만 명(5~12월 8개월간, 총 591만 7천 명)이었다가, 2019년 월평균 71만 명(총 853만 6천 명)으로 다소 감소했다.

올해의 경우 6월까지 월평균 89만 명(총 534만 5,000명)으로 전년 대비 25% 이상 증가했고 2018년에 비해서도 20% 이상 증가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 세대’ 트라우마를 막기 위한 맞춤형 지원정책 마련을 위해서도 항불안제 처방에 대한 면밀하고 적극적인 모니터링이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송성환 도의원, 생진원 내 농식품 입주기업과 간담회

전북도의회 송성환 의원(전주7, 더불어민주당)이 6일 전북농식품산업진흥원에서 전북도 농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농식품입주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코로나19 여파로 많은 농식품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송성환 의원은 입주기업 대표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농식품산업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현장 목소리 청취에 나선 것이다.

간담회는 참석자 전원 마스크 착용, 발열 체크, 손소독 실시 등 철저한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진행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입주기업 대표들은 미래 중요 산업으로 재조명받고 있는 농식품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농도 전북이 살아남기 위해 농식품산업



을 적극 육성해야 하는데 목소리를 같이했다.

이석우 입주기업협의회장은 “현재 전북도는 다양한 투자와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의 원동력인 농식품산업을 육성하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숨통 틔우기 지원이 아니라 보다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기술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며 “열악한 농식품기업의 경영안정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송성환 의원은 “코로나 19로 국내는 물론이고 세계 식품시장에서 간편식과 건강식품의 수요가 늘고 있어 도내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축수산물 가공품이 얼마든지 국내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다”며 농식품산업 육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그대로 소비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농축수산물을 활용한 농식품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농민과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비대면 임사회’ 정착... 지방의정 새 지평

완주군의회(의장 김재천)가 비대면 임사회 정착 등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새 지평을 열어가고 있다.

군의회는 6일 제255회 임시회 개회식을 갖고 오는 15일까지 10일간의 회기 일정에 돌입했다.

군의회는 지난 9월 회기에 이어 이번 10월 임시회에서도 코로나19 감염 방지 차원에서 박성일 군수 등 집행부 공무원들이 의회 건물로 이동하지 않은 채 온라인으로 참석하는 비대면 개회식으로 진행해 주변의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특히, 상임위 출석 공무원 최소화, 비말차단 가림막 설치, 좌석 배치거리 확보, 회기중 도시락 식사, 출입자 명부작성과 체온 측정·손소독 등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준수했으며, 발

언 시에도 마스크 착용 등 방역을 강화해 비대면 임사회에 새 지평을 열었다는 평을 받았다.

군의회는 추석 연휴 이후 코로나19의 집단감염 발생이 우려돼 언택트 임사회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군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완주군 보건소 등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7건, 완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집행부 제출 조례안 5건, 완주군 산림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28건 총 40건에 대한 안건 심의를 7일과 8일 이틀 동안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예결산 특별위원회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 및 의결을 한다. /완주=이종훈 기자

국주영은 도의원, 전주시 노인익장 공익장 수상

전북도의회 국주영은 의원은(더불어민주당, 전주9)이 6일 노인복지증진과 일자리 창출 업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전주시노인익장 공익장을 수상했다.

국주영은 의원은 평소 노인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인들의 복지향상과 일자리 창출, 노인복지관 발전 등 노인 정책과 그 위상을 적극적으로 도정에 반영해 노인들의 권익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공익장을 수상하게 됐다. /유호상 기자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축! 전주매일 창간

“평안을 주는 예수병원”

예수병원의 다른 이름은 사랑입니다. 예수병원은 122년 동안 생명을 지켜온 사랑으로 희망의 내일을 열어 가겠습니다. 환자처럼 중심의 진료환경으로 행복을 키우는 예수병원 예수병원은 언제나 당신 곁에 있습니다.

「내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줄 수 있게 하소서」
1897년, 예수병원 제1대 병원장 마티 잉골드 일기

54987 전북 전주 완산구 서원로 365 대표전화 : 063.230.8114 고객지원센터 : 063.230.8181/8196 응급의료센터 : 063.230.8282